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만민을 지어주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창단 미디어가 널리 발전하면서 시대는 갈수록 약해지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느끼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견고히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저해 있는 자는 공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전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 12:3-4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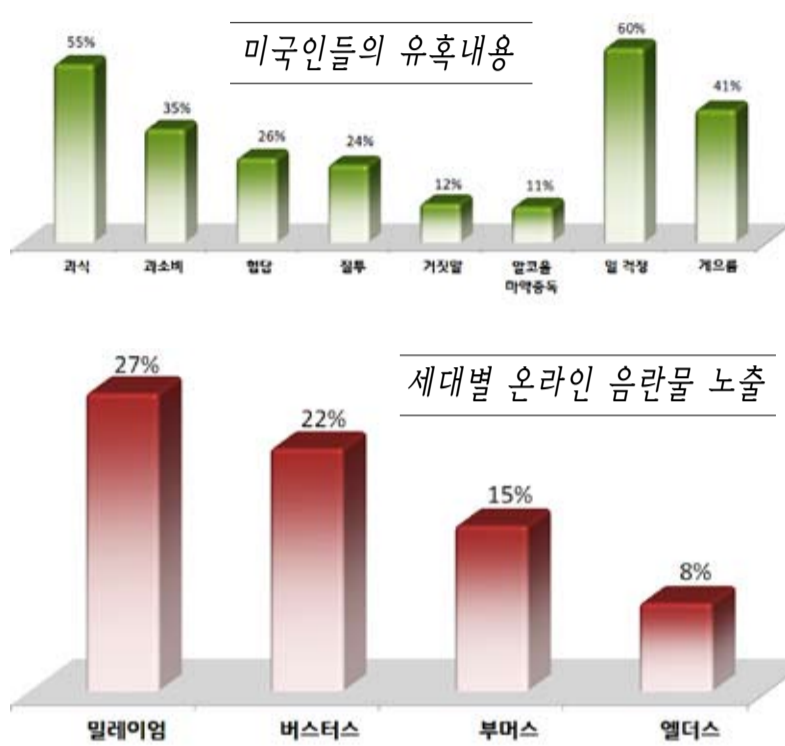
www.chpress.net

제 1418호 2013년 1월 19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공공의 적’ = 미디어 · SNS · 이메일

바나리서치, 2013년 맞는 미국인들이 받는 유혹대상과 최악 설문조사

2013 신년을 맞아 새해 목표와 소원을 품고 결단하는 이들이 많다. 보통 사람들은 올해 건강과 가족의 화목, 취업과 결혼, 승진 등을 첫째 소원으로 꼽기도 했다.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해를 시작하는 크리스천들은 자신만의 기도제목과 함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갖는 결단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목들은 여느 해와 다르지 않다. 반복되는 습관이나 유혹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바나리서치는 기존의 유혹이나 죄들, 즉 과식, 과도한 커피, 험담, 질투, 포르노 보기, 거짓말, 알코올 중독 등보다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바로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즉, 미디어에 빠져 있거나 문자나 이메일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 새로운 유혹이라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밝혔다(New Research Explores the Changing Shape of Temptation: Temptations and America's Favorite Sins). 바나리서치의 이번 설문은 미전역 18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결과로, 95% 신뢰도와 ±4%의 오차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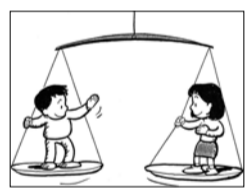
새해 첫 시작을 “되도록이면 미디어나 SNS, 이메일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첨단 기술에 관련된 유혹에 맞서는 결단을 하는 미국인들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44%들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직장이나 집에서 돌아오거나 시간이 나면, 아무런 생각 없이, TV를 켜고 즐겨보는 채널을 고정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며, 컴퓨터 비디오 게임에 빠지고 있다. 여기에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일일이 답장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다. 미국인들 중 11%가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와 SNS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하고 있다.

백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혹들은 첨단 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치명적이다. “밀레니엄 세대” 중 53%는 거의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액션 화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25%는 SNS나 블로그 등에 자신들의 분노나 악의가 담긴 악플이나 댓글을 달고 있다. 그리고 27%의 밀레니엄들은 온라인 포르노에 노출돼 있다. 반면에 나이 든 세대일수록 버스터스는 22%, 부머스는 15% 그리고 엘터스는 8%만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포르노에 노출돼 있다.

이런 설문 조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는 유혹이 다르다는 기존 사실이 증명됐다. 즉 남성들은 “안목의 정욕”, 온라인을 통해 포르노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에 여성에 비해 취약하며(28% v. 8%), 여성들은(29%) 친구들과 함께 남에 대해 험담하거나 수다를 떠는 것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다. 이외에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소한 것들에 너무 걱정이나 근심에 빠져 있고(68% v. 50%),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며(28% v. 20%), 과식을 하며(58% v. 52%), 소득보다 더 지출하는 문제(39% v. 32%) 등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해 아래 새것은 없나니”라는 성

경 말씀에 부합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유혹들은 그대로 있다. 특히 “과식”이 1순위로 55%의 미국인들이 먹거리 앞에서 항복하고 있다. 도저히 조절하거나 먹고 싶은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먹거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성적 유혹 앞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죄들 즉 “과소파”는 35% 정도가, “험담이나 뒷담화”가 26%, “질투”가 24%, “거짓말”이 12% 그리고 “알코올/약물 중독”에 11%의 미국인들이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고민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유혹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죄들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첨단 기술의 유혹 등이 더해져, 어떻게 보

면하면 사면판방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죄의 포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새롭게 부각된 점은 바로 “서구적 유혹”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서 유혹을 받지만 일이나 직업에 관련된 영역에서 “연기”,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너무 걱정하며(60%),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게으름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41%)이 바로 “서구적 유혹”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이는 생산성에 관련된 종교적 직업윤리의 결구일지도 모르고, 물질적 성공과 분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사회의 특성이 빚어낸 결과일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복음으로 “성별선택 낙태관행” 방어 2면



상황 파악하고 조절하는 리더 돼야 3면



미리 가보는 성자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2)



칼럼 / 음악목회 (1) 송규식 목사 7면

사 고

2013년 새롭게 편집되는 연재/필자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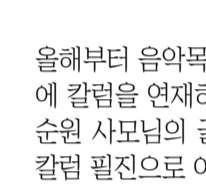
2013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 새롭게 게재되는 연재물과 새 필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오는 4월 8일부터 9박10일 동안 개최되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성지순례를 위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예수님의 발자취”(7면)를 연재합니다. 또한 이 연재물은 사정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면에 게재되는 시론의 새 필진으로 최창섭 목사님(뉴욕에베레셀신교회 공동담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송상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교육칼럼 필자이신 송규식 목사님이 올해부터 음악목회에 대해 집필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본지에 칼럼을 연재하셨던 “가정사역” 금정진 사모님과 “사모칼럼” 황순원 사모님의 글은 면을 옮겨져 새롭게 편집됩니다. 또 새로운 칼럼 필진으로 여승훈 목사님(목상칼럼)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교면에 게재됐던 ‘기독교문화소설’을 마치고 새 연재로 정정숙 박사의 간증 “아빠의 선물”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발췌해서 게재합니다.

새롭게 편집되는 2013년 본지에 더욱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YWAM DRH / Dominica Republic & Haiti 2013 COMMUNITY DEVELOPMENT

CD DTS

도미니카공화국... 열방대학 개강

도미니카공화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열방대학이 세워져 오는 4월25일에 개강합니다.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 특정 기술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과 카리브지역, 중남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교민들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현지인들이 훈련받아 주위 나라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으며 이일에 동참할 세계 속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DTS 강의내용

목상 /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버지의 사랑
성령
내적치유
증보기도/영적전쟁
성경적 세계관/사고방식
재정/관리포기
전도훈련
BAM: business as mission
기타

DTS 직업훈련 내용

현지인들이 일정기간 내에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분야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직업기술을 선택
자연농업
IT 교육
보건/간호교육
자동차 정비(Mechanic)훈련
영어교육
주택설비/인테리어
미용 기술
요리교육
현지 적정기술연구
기타

훈련 기간

강의: 2013년 4월25일~7월15일(12주)
전도여행: 7월16일~9월7일(8주)

학 비

강 의 비 용 외국인 \$2400/1인, 카리브해 현지인 \$1500/1인
동반자 15세 이상 \$1000/1인, 3~15세 미만 \$500/1인
Outreach 경비 외국인 \$2000/1인 내외, 카리브해 현지인 \$1200/1인
(예상 금액으로 도시에 따라 달라지며 3~15세 미만은 경비의 50%)

홈페이지 및 연락처

ywamdh.com

YWAM CD DTS
1516 Betancourt St. Bella vista, Santo Domingo, D.R.
TEL: 809-532-6760 / E-mail: evergrace47@yahoo.com / Kakao talk: evergracekim
(미국 현지 연락처) 허 승호 선교사: 323-775-4791 / 박 남수 장로: 213-247-9116



시론

내가 누구이기에



양준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3장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스스로 자신은 “I am nobody”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모세 그는 누가 보아도 “somebody”였습니다. 수많은 히브리인 사내 신생아들이 바로의 탄압에 의하여 나일강 하수에 던져져 죽어갔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을 받았고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면서도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선택과 구원을 받은 그 사실 위에 “I am somebody”라는 자아의식이 강하게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왕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서 강대국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며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속하여 성장한 그는 준수한 외모에 문무를 겸한 참으로 기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라가 공인하는 “somebody”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이 인정하는 “somebody”로서의 모세는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줄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애굽을 대항하여 싸워주어야 할 모세가 고작 애굽사람 하나를 때려죽이고 바로의 낮이 무서워서 피신하였습니다. 히브리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가 한 동족의 비난을 받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somebody” 모세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피신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큰 깨우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자신은 “somebody”가 아니라 “nobody”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이 순간부터 모세는 진정 “somebody”가 되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nobodies”를 택하셔서 “somebodies”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늘 함께 계시주십시오. 출애굽사역의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모세는 “somebody”,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을 위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스스로 “나는 some-body”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nobody”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somebody”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somebody”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 조명(spotlight)아래 모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은 흔히 비좁아서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 겸손히 섬기는 이들은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일군을 위한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There is always room for one more servant.” 그리고 하나님은 조명아래 있어서 주연의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주연을 향한 조명과 박수가 보다 영화로울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조명아래 주연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성별선택 낙태관행” 방어

CT, 아시아 여자태아 살리기 위한 교회공동체 사역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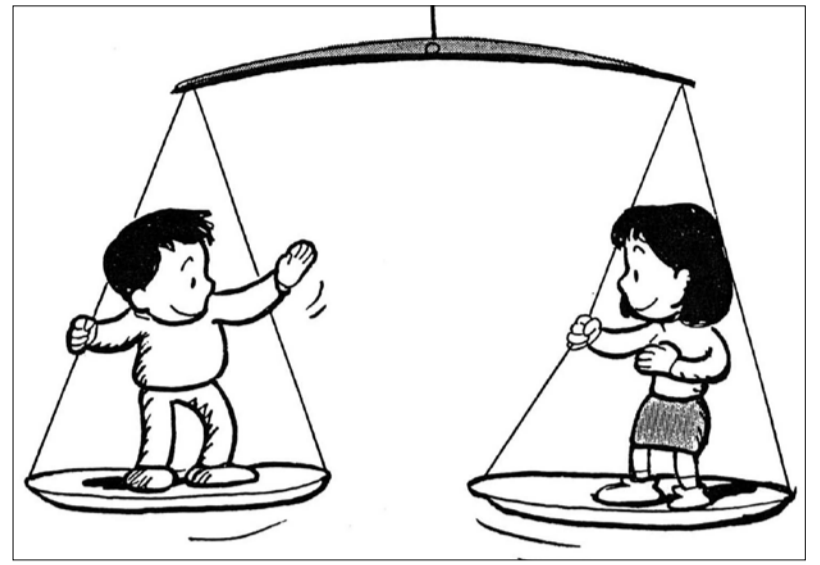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있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사랑의 결실이자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임신한 아이가 “여자 아이”라고 판정이 되면 가차없이 지워버리는 행태는 아직까지도 아시아권에서 빈번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1970년대 말부터 지난해까지 1억6300만 여아들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됐다고 보도하며, 마라 히비스텐달의 저서 ‘부자연스러운 선택’(Unnatural Selection)을 인용해 성비 불균형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사회는 종종 불안정하며 폭력적으로 바뀐다”며 여아살해가 횡행하던 시기를 예로 들며 실제 하층 계급의 미혼남성들이 사회문제화되며 범죄율이 치솟아 오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에서도 폭력과 범죄발생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는 수입이 아니라 성비다.

또한 중국에서도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별비례(성비)는 지난해 117.78(100명의 여자 당 117.78명의 남자)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성비의 3년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성비인 여자 100명 당 남자 103-107명에 비해 큰 차이가 있으며 성별 불균형 현상은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과 ‘한 부부 한 자녀’ 인구제한 정책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 관행 때문으로 밝혀졌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지는 이를 보이지 않는 대학살로 해석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교회공동체만이 이를 막기 위한 기도와 실제적인 사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Genocide in Shades of Pink: What if every female in America suddenly disappeared? It would feel a lot like Asia, where sex-selective abortion has taken 163 million girls. How the gospel is slowly turning the tide on the quiet holocaust).

크리스처니티투데이지가 전하는 이들 지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인지라, 가부장적인 인식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태아 성



동체나 기독교적 비영리단체들은 생명 존중보다는 광의적 개념인 “인권” 차원에서 정부나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천명하며 계몽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거나 대할 수 있는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로 여태에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교회공동체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는 이미 중국 전역을 상대로 이

를 돕고 있다. 240달러 정도를 어머니에게 주어 안전하게 여자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 배려를 베풀고 있다.

결론으로, 여성과 여자태아 인권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장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유교적 문화를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 문화로 변형시켜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하

남아존중사상 만연 아시아 성비 남성 105 vs. 여성 100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 성경적 문화정착만이 해결책

자 아이”이기에 낙태를 통해 버려지는 의료 폐기물(?)이 병원 근처 골목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떠돌아다니는 고양이와 먹이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미 마라 히비스텐달(Mara Hvistendahl)은 폴리처상으로 선정된 ‘부자연스러운 선택’을 통해 성비 불균형이 미래의 재앙이 된다고 경고한 것처럼,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학자 굴리모토(C. Gulimoto)에 따르면 아시아의 성비는 남성 105 vs. 여성 100이다. 그 이유는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에 비해 소아기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천문학적인 숫자로 여자 아이들이 소리 없이 죽어갔기 때문에 심각한 성비 불균형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자가 없다.

여성 부족 현상은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심각하다.

감별을 통해 인구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인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면 남자아이 1,000명 당 여자아이 914명으로 86명의 남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결혼할 여성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빈번한 성 폭력의 주원인은 바로 성비 불균형에 따른 불만이 끓어오른 것이다. 중국 역시 인간이 만든, 아니 선택한 인구 조절에 따라 성비 불균형(여 100 vs. 남 117.78)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남아 선호사상이 ‘가정 당 한 자녀’ 정책에 편승해 심한 불균형을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비영리단체(Women’s Rights Without Frontiers)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신9개월에 들어선 태아”까지도 낙태하게 만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공식적인 정부가 벌이는 살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중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나병과 같은 천형이다.

따라서 인도나 중국에서 교회공

를 교육하고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100명 이상의 지역 지도자들을 선발해 훈련시켜 내보내고 있다(Heartbeat International).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정 당 한 자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부정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한 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게 교회 지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여자태아 인권 옹호단체(All Girls Allowed)는 서구식 출산 축하 전통인 “베이비 샤워 프로그램”을 도입해 빈곤한 시골 마을에서 여자아이를 가진 어머니

고 고귀한 생명이라는 문화를 정착시킬 때만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아시아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어디서나 악한 세력이 주도하는 ‘죽임’의 문화를 찬란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살림’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공동체만이 가능하다. 바로 중국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는 아시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실제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수시 입학 가능
-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상황 파악하고 조절하는 리더 돼야!

리더십저널, 오브리 맥퍼스 목사의 상황화 리더십 원리 소개

리더의 능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크게 실패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고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역이나 목회의 상황은 리더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이는 결국 리더십의 효율성을 결정하게 된다.

오브리 맥퍼스 목사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모든 상황에서 성공하는 리더는 없으며 '상황에 맞추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상황에 맞추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 단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단계 : 리더로서 스스로를 파악하라

리더는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관, 동기, 신념을 동원하게 된다. 그래서 리더는 나의 신학적 배경, 사역에 대한 나의 핵심 가치관, 나의 리더십 유형, 나의 리더로서의 역량, 나의 사역 철학과 목회 철학, 나의 이상적인 사역 환경

2. 랑, 교회의 목회 철학, 교회의 이상적인 사역 환경, 교회의 신뢰도, 교회의 힘의 구조,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든가 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3단계 : 사역의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라

리더는 1단계와 2단계에서 파악

4단계 : 상황을 바꾸거나 적응하라

리더는 자신의 특성과 기질에 따라 고유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지만 사역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그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제2, 혹은 제3의 특성을 발휘해야 한다. 어쩌면 성향이 전혀 다

결국 리더십을 논할 때 가장 관과하기 쉬운 부분이 사역적 상황이다. 어떤 사역에서는 눈부신 성공을 거둔 리더가 다른 사역에서는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인 리더란 진실한 마음가짐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자신 먼저 파악, 후에 사역대상 파악 상황 바꾸지 못하면 자신이 적응해야

이라는 6가지 요소에 있어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단계 :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상을 파악하라

리더는 1단계에서 언급한 자신에 대한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교회의 신학적 배경, 교회의 리더십 유형, 교회가 가진 역

한 리더 자신과 교회를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비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 리더를 적기에 적재적소에 세움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최대화되고 사역 효과 역시 최대화가 된다. 반면에 적재적소에 리더를 세우지 못하면 영향력과 효과는 감소하고 리더 자신에게 과중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야기되게 된다.

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상황에 따른 리더십 발휘"라고 한다. 반면에 상황을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리더보다는 사역이나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이다. 이것을 리더는 정확히 판단하여 사역 초기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면 교인들이 가치관을 이해하기도 쉽고 사역의 목표와 달성 방안을 구상하는데도 좋다.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진실한 마음과 적절한 능력으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놓여있는 사역적 상황과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분별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적' = 미디어 · SNS · 이메일

(1면에서 계속)

한마디로,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로 게으르면 안된다는 잠재의식이 미국인들에 형성돼 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바나리서치 회장, 데이빗 킨너맨은 다음과 같이 정리 및 해석을 해 준다:

1. 미국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 온라인 영역에서 너무나 유혹의 약한 세력들이 등장해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터치나 'enter' 키를 누르기만 하면, 최악의 콘텐츠들

이 즐비하다. 여기에 자신들의 분노나 좌절을 SNS나 인터넷 상에 유포할 수 있다.

2. 젊은 세대 즉 밀레니엄들이 바로 유혹 앞에 무너지기 쉬운 대상이다: 첨단 기술에 자유로운 이들에게 미디어나 온라인의 유혹은 기존도덕이나 윤리적 방어기제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결국 미디어나 온라인의 영향력 앞에서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규범들이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다.

3. "게으름"이나 "열심히 일을 하

지 않는다"는 생산성에 관련된 유혹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은 성경적인 주제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성경적인 주제가 아닌 직업과 관련된 완벽이나 생산성이라는 가장 미국적인 가치를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있다.

4. 가장 놀라운 설문 결과로, 오직 1%의 미국인만이 유혹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인정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유혹을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문제로 그냥 마주치는 문제이지, 저항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 즉 유혹은 바로 죄악의 길목

으로 들어서는 지름길이라는 사고를 미국인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 미국 사회의 현주소이다.

결론으로, 크리스천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며 이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많다. 또 생명이 연연하여 염려와 걱정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또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염려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 이들은 잘못된 우선순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바나리서치의 설문 조사는 보여준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시 84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하시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84편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사모함을 주셨고,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대감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하지요? 성전에는 복 받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살후 3:2)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열성,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은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인생이라는 흘러가는 시간은 나에게 왔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짧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생활은 시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를 살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절). 늘 성전이 그림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이 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주의 장막'으로 표현했다가 2절에 가서는 '여호와와 궁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막과 궁정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장막은 간단하지만 궁정은 그 안에 부귀영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자주 출입하다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부요한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궁정에 들어가서 화려함과 부요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정을 사모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러주셔서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오는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만 여기고 그저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인생을 사는 자들,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셔서 주의 집에 거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품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성전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성전은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 구하여 성전에 갈 필요가 뭐 있어? 어디든지 계시는데..."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고집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초라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깊은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다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주셔서 아버지 가까이에서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신학대학, 대학원
The UPCA Theological Seminary (UTS)

www.upcats.com

2013학년도 (주.야간/신입/편입) 신입생모집

교과 과정 안내

학사	학위명	과정	자격
학사	신학과(BTH)	4년	고졸 및 동등 학력자
	기독교 교육학과(BCE)		
	영성상담 치유학과(BCC)		
	선교학과(B.M)		
석사	기독교 음악과(BCM)	3년	대졸 및 동등 학력자
	목회학과(M.Div)		
	목회상담치유학과(MCC)		
	기독교교육학과(MCE)		
	선교학과(M.Miss)		
박사	기독교음악과(M.CM)	2년	M.Div 졸업자
	신학석사(TH.M)		
	목회학박사(D.Min.)		
박사	목회학박사(D.Min.)	3년	M.Div 졸업 & 목회 3년 이상

학교 소개

본 대학(원)은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직영 대학(원)으로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생활 훈련을 통해 WCC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세속주의의 물결의 시대풍조에 맞서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 정통 보수 노선의 신학대학(원)입니다.

입학 소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신앙고백서 1부, 목사 추천서 1부
 - 명함판 사진 2매
 -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이사장: 황의준 목사 대학원장: 한성호 목사 학장: 김용익 목사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신학대학, 대학원

대표전화

NY : 718-310-7062
718-374-3535
NJ : 201-647-6334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세상을 이긴 사람

마포에서 사역하셨다는 K목사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셨다. 그것은 40여 년 전의 일이라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K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옛날 담임목사님께서 존경하셨던 바로 그분을 말이다. 놀랍게도 경건생활의 탁월

한 길을 걷는 분들은 그 계보가 있는 듯싶다. 즉 자신이 큰 감화를 받을 때 그 받은 대로 살아가는 이어짐 때문이라.

K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는 1960년대 영락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교세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교회의 특징은 교회당 건물이 없

고 판잣집을 개조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집 없는 분들을 위해 주변의 판잣집들을 한 채 두 채 사서 계속 늘려나갔다고 한다.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팔팔에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외에는 절대로 식탁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항상 채식 위주로 식사했고... 또한 그 교회의 특징은 간판이 없고 종각과 종탑이 없으며 십자가, 의자, 풍금도 없었다고 한다. 오직 목사님이 앉아서 강도할 때 앉은 의자 하나만 있었다.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남자 교인은 당선처럼 삭발을 했고, 여자 교인들은 파마를 못하게 했다고 한다.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었기에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 한 후 안수를 받아 교회청빙을 받아갔는데 총각은 받을 수 없었기에 결혼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 조건이 첫째는 간호사이어야 하고, 둘째는 얼굴이 못생겨서 시집을 못가는 여자여야 한다고 했다. 마침 못생겨서 시집을 못간 세브란스 간호사가 있어 중매쟁이의 소개로 맞선을 보는데 혼자 나올 수 없어 자신보다 더 못생긴 친구를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K목사는 함께 나온 친구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는 당신, 나와 결혼하자고 하여 따라온 간호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처녀는 천연두를 앓아 얼굴이 심하게 얼었고 자궁을 적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처녀와 결혼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보다 금욕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설득하여 33년 동안의 의혼은 오누이로 살았다고 한다.

그는 항상 저녁 6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1시에 일어나 식사하고 목상하다가 통금이 해제되면 연대 뒷산으로 올라가 기도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냉수마찰을 한

후 8시에 심방을 하고 오전 9시에 점심,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을 먹었다. 심방은 문밖에서 안부를 묻는 것으로 했고, 들어갈 때는 아랫목이 뜨뜻한지를 손을 넣어 확인했고, 그리고 쌀독을 열어 보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다. 그래서 방이 차다든지, 쌀독에 쌀이 없을 때는 항상 돈을 두고 나왔다. 그는 결혼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에게 나를 주례로 세우려면 손님은 20명 이내로 참석해야 하고 신랑 신부는 입던 옷 그대로 입어야 하고, 국수 세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다. 하나는 주례 목사님, 나머지 둘은 신랑과 신부가 먹도록 했다. 그런데 후에는 신랑 신부만 먹도록 두 그릇만 준비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신자가 죽으면 예배를 드린 후 손수레에 싣고 가서 화장을 했고, 아이가 죽을 때에는 목사가 손수 지게에 지고 가서 산에 묻었다. 1965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고인의 유언대로 손수레에 싣

고 가서 화장을 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때 절대로 울지 말라고 했으나 1200여명의 교인들은 수레 뒤를 쫓아가며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올림-우리가 몰랐던 예수 참조).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통곡하면서.

그는 평생 예수님을 본받아 청빈과 순결의 길을 걸어갔고, 허례 허식을 멀리했다. 그는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 기도와 목상으로 하루일과를 보냈다고 한다. 항상 머리를 스님처럼 깎았기에 중목사로 불렸고, 검은 고무신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사랑 실천, 그것이 그의 일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한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종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다.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푸/른/초/장

진유철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나성순복음교회)



일의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일찍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있지만, 뒤늦게 머리가 트이거나 성공하는 사람은 더 훌륭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오해, 슬픔, 고생 등의 슬픈 고비를 극복하고 마지막이 잘되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시작은 힘들고 작더라도 나중에 좋고 마지막이 훌륭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수록 복 받는 사람입니다.

가 좋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국민과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인들도 부자가 되기까지는 잘나갔으나 나중에 존

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나 한 대화를 보십시오. 창47장8,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 목적지가 올바르게 분명해야 합니다(29-31절).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 자신의 장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의 믿음과 삶의 일치 거 짓 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은 가나안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은 다 가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변창하였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 없어진 것입니다. 또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무덤 자리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만 원한다면 피라미드도 만들어 줄 판 아니겠습니까? 당시 장의사의 기술은 몇 천 년씩 보존되는 미이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애굽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정황으로 본다면, 야곱의 장례는 애굽에서 하는 것이 더 쉬울 텐데도 야곱은 가나안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야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 오직 세일즈맨으로 살면서 생의 목표가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자기 자신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은 현실의 어려움과 자식들의 배반으로 하나 하나 깨어지게 됩니다. 먼저 직장을 잃게 되었고,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 마지막 화해한 아들에게 보형금을 물려줄 생각으로 자동차를 고속으로 몰아 자살을 합니다. 이 회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하는 말로 끝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누군가를 끌고까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일 때 다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전2:11).

잘못된 생의 목표,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더라도 계속되는 것이 올바른 목표며 비전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올바른 영원한 목표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해피엔딩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바라보는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2013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적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창47:27-48)

경말지 못하는 부자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기까지 영향력이 생기기까지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는데, 그 다음 끝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의 3대 불행을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말년 무전이라 하는데, 인생의 초년에 일이 쉽게 풀리고 여건이 좋아 성공한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분문의 야곱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질 때의 모습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해피엔딩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살아서 만났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모든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가정적으로도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여 잘 삽니다.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려 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말과 행동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야곱의 고백처럼 그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분명한 목적지를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어디서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 온 이유는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7년이면 끝났을 흉년인데, 17년 동안 계속 지내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목적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았고, 그러므로 처음보다 끝이 더 잘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과 같이 올바르게 분명한 목적지 또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더 밀러의 회곡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은 1950년대 미국 최고의 연극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윌리 로먼은 30년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3 새해 특별 기도성회

| 일시 : 2013년 1월 17일(목, 저녁)~ 1월 24일(목, 저녁) |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라즈푸트 가라시아(RAJPUT GARASIA)



라즈푸트 가라시아(Rajput Garasia) 족은 인도의 서부 중앙 지역의 구자라트(Gujarat)과 라자스탄(Rajasthan)의 산림지역 전반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브힐의 소그룹에 속한 인도-아리아어 하 나로서 둥구리 가라시아(Dungri Garasia)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브힐족과 인척관계가 있지만 라즈푸트

는 상위 카스트에 속한다. 그러므로 브힐족의 하나로 취급되는 것을 싫어한다. 라즈푸트 가라시아는 라즈푸트와 아라발리(Aravalli) 언덕으로 피신해 브힐 정착민들과 섞여 살았고 당시 가라시아는 브힐의 추장과 그들의 추종자를 패배시켜 숲 속 산기슭 가까운 곳에 정착했다. 거기서 그들은 그 지역주민들을 보호하

삶의 모습
라즈푸트 가라시아인들의 평균 소유지는 적다. 옥수수는 모든 가족들이 재배하는 주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계수단으로 일산물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채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브힐족에 많은 알코올중독자는 없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흙과 대나무 벽으로 지은 한 칸 방 집에 살고 있다. 부유한 자들은 납작한 타일지붕을 올리지만 가난한 자는 아직 초가지붕을 사용하고 있다. 집들은 보통 집 앞에 자신들의 발을 향하도록 한 언덕 비탈진 곳에 있

사람들은 대가족제도이므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산다. 다른 브힐 족과 상호결혼은 허락되지만 사촌간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남자들은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 갖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한번 이상의 결혼이 허락된다. 라즈푸트 미망인들은 마을에 액운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지금은 불법이 됐지만 어떤 미망인은 마을의 유익을 위해 불속으로 자신을 희생한다. 마을 공동체는 그녀의 고귀한 헌신적인 생의 마감을 위한 결심을 추도한다. 또 여인들은 은으로 된 많은 장신구를 한의상을 좋아한다. 그들은 큰 속치마(페티코트)와 검은색 혹은 붉은색의 브라우스를 입는다. 남성들은 붉은 색 또는 흰색의 터번(turbans)이 유명하고 남녀 공히 문신을 한다.

신앙
전통적으로 라즈푸트는 그들의 말, 검, 그리고 태양을 숭배한다. 오늘날 그들은 아직 토속종교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힌두교의 매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많은 잠신을 숭배하고 기록한 소를 우대하지만 각종 귀신과 죽은 자의 영과 흑 마법을 두려워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의 라즈푸트 가라시아인들을 구원할 복음의 도구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한 선교기관이 그들을 목표로 수고하고 있지만 오직 1%만 기독교로 복음화 됐다. 보다 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헌신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20년전 동성애에 발인 목사 대통령 취임 축도 하자

백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축도자로 선정됐던 루이 기글리오(사진) 목사가 과거 반(反)동성애 발인 때문에 개탄하자 미국 보수 기독교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CNN이 14일 보도했다.

미 남침례신학교 앨버트 몰러 총장은 “성적으로 관대한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윤리적 매카시즘이 출현했다”며 “(동성애를 용인하는) 신중 성 관념을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보수주의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개탄했다. 동성애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극우·반동 인사로 몰려 비난받는 세태를 ‘새로운 매카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매카시즘(McCarthyism)은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성향을 보이면 ‘빨갱이’로 몰아 처벌했던 반공주의 선풍을 가리킨다.

기독교 전문 조사기구 라이프웨이리서치를 운영하는 에드 스테처도 “오랫동안 성경적 신념을 고수해 온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학자 러셀 무어는 “성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새로운 ‘국가교회’가 세위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20여년 전 설교에서 동성애를 ‘개조해야 할 죄악’으로 규정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취임식 축도자에서 물러나게 된 기글리오 목사는 “이 나라는 지금 심각하게 분열되고 영적으로 곤궁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11년 연속 기독교 박해 세계 1위

전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는 8일 공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픈도어스가 발표하는 종교박해국 리스트에서 11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다.

보고서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공산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은 어떤 종류의 종교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체포, 구금,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15호 정치범 수용소에는 6천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심각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지하 교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픈도어스는 이어 “새로운 김정은 권력 체제 하에서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신이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서는 북한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몰디브, 말리, 이란, 예멘, 에리트레아, 시리아 등 11개국이 ‘극심한 억압국(extreme persecution)’으로 분류됐다. 또 수단 등 12개국은 ‘심각한 억압국(severe persecution)’으로, 중국 등 23개국은 ‘보통 억압국(moderate persecution)’, 우간다 등 4개국은 ‘약한 억압국(sparse persecution)’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프랑스 이슬람교계, 동성결혼 반대 본격화

프랑스 이슬람교도들이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유럽1 라디오 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이슬람 운동가 50명은 7일 이슬람 신도들에게 오는 13일 파리에서 열리는 동성결혼 반대 집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들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결혼의 전통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집회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무슬림이 대거 참석할 것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서한은 또 프랑스 정부가 실업 문제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결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동성결혼을 ‘모두를 위한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프랑스 정부에 맞서 진행되는 ‘모두를 위한 행진’에 이슬람교도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운동가들의 이번 공개 촉구는 프랑스 이슬람 기구연맹(UOIF)이 지난 주말 동성결혼 반대 호소를 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언론은 전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500만명의 이슬람교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는 가톨릭 다음의 2대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

예루살렘 인근 텔 모자서 유다왕국 유물 다수 발견

이스라엘 텔 모자에서 초기 유다 왕국의 종교 관습과 의식을 알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발견됐다고 이스라엘 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발견된 유물은 사람 모양의 토기 조각상들과 도자기기대(BC 1000-925년) 초기의 대형 건축물 등이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발굴된 건축물은 성전으로 추정된다. 건축물의 입구는 고대 근동 지역의 신전 건축 방법에 따라 동쪽으로 나 있다. 해가 뜨면서 신전 안쪽에 놓인 물체를 가장 먼저 비추도록 설계돼 있다. 뜰에서는 제단으로 보이는 정사각형 구조물과 제사용품 보관실을 발견했다. 보관실 내부에는 성배 파편과 장식이 있는 종교의식용 받침대,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 등이 있었다. 골슬머리에 납작한 모자를 쓴 사람의 얼굴 조각상(인간화된 신을 상징·사진 ①)과 말 모양의 동물 조각상(사진 ②) 등도 발굴됐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의 대표 발굴 감독자인 안나 에이리크와 하무디 칼라일리, 슈야 키슬레비츠 박사 등은 “의인화된 작은 조각상은 해안(海岸)의 영향을 증명할 만한 중요한 증거로, 이를 찾은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구글 어스, 북한 강제수용소 지도에 표기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북한 방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구글은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를 지도에 표기해 북한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간접적으로 이바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인권운동가들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구글이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구글 어스는 북한이 감추기 원하는 여러 비밀을 마치 새가 하늘에서 쳐다보듯 모든 것을 지도에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가와 블로거들은 구글의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북한 전역에 있는 수십 개 노동수용소를 지도에 표시해 놓았다. 국제 인권운동단체가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25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은 대부분 산간지역에 있는 노동수용소에서 식량배급을 받으며 굶주린 채 힘든 노역을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로켓을 쏘지 못 해도 안 돼 슈미트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뉴 멕시코 주지사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구글 어스가 북한을 계속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악이 되지 말자’는 구글의 비공식 기업 모토를 신뢰하는 편이다.

북한의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워싱턴의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은 “슈미트 회장이 평양에서 무엇을 했건 몇 주면 다 잊혀진다”면서 “그러나 역사적으로 구글이 지금까지 해 온 좋은 점은 북한의 진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ATS 인준 쉐퍼드 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라게 성장하고 있는 쉐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 미래**
 - 미군 군복 징교 진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 2 높은수준**
 - ATS 인준 (Candidacy)목회학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 3 편안한 교육**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영어강의 / 통역강의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성경 운동의 주체이자 20세기의 성경적 재지향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회 성장, 제자 훈련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이며, 그의 책 '제자훈련'이 7개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웨비나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회성장, 영지도 분야에서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 전향과 내적 치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자서전은 깊은 상층을 자유하시니 해·기능·사건·영을 대항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능적 기쁨과 영이 각자에게 출현, 생애적인 평안을 이끄는 것으로 현재 세미나 신학대학에서 내적치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소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잭 웨이모드, 빌 브라운 박사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문명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단체)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류도 열광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람의 기쁨부름', '번역' 등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 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2)

1. 악고(스블론) 평야

악고(스블론) 평야는 로쉬-하니 크라에서 갈멜산까지 약 40km거리 지역으로 바닷가의 모래 퇴적이 심하고 수심이 매우 얕으므로 항구 건설이 불리한 여건이 됐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의 흐름을 막아 늪지대가 많이 형성된 까닭에 주요 도로나 농경지는 내륙 깊숙이 발달했다.

성경과 관련하여 악고 해안지대의 모래는 눈부시게 희기로 유명해 고급유리를 만드는 최고의 원료이고 이 모래는 놀랍게도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서부터 조류를 타고 밀려왔다. 이는 옛날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볼 수 있다. “스블론(악고의 옛 이름)에 대하여 일렀으되...바다의 풍부한 것(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다”(신33:18-19) 모세가 말한 축복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으나 지금은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은 것이다. 주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쉬-하니크라’(두로의 계단)는 갈릴리 산지의 한 지류가 서쪽으로 뻗어나와 지중해와 만나는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고 있다. 악고(돌레마)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일지 조건이 좋은 항구로서 헬라의 프톨레미 2세는 이곳을 ‘돌레마’라고 개명했다. 바울이 그의 제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치는 AD57년경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도중 이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며 이 지역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행21:7).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시대에 약 100년 동안 팔레스틴 내의 십자군 왕국의 수도가 됐으며 이는 교통이 편리한 항구도시의 조건을 갖추었기에 가능했고, 1291년 이 성의 함락을 계기로 팔레스틴에서의 십자군 역사는 끝나게 됐다.

기손강은 지리적으로 무것도 부근의 북부 사마리아 산지에서 시작돼 이스라엘 평야와 악고 평야를 거쳐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이다. 성경과 관련하여는 드보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바락이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벌였던 지역(사4:7, 13, 5:20이하)으로 시스라 군대의 강력한 마병이 패전한 것은 겨울철 폭우로 인해 생기는 주변의 진흙 때문이었다. 강 상류에는 여름에는 말라있고 겨울철 우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 강 주변의 부드러운 토양들이 진흙벌이 되는 현상으로 그 당시 마차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간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신앙 대결을 벌인 후 이곳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왕상18:40).

2. 돌(Dor) 평야

돌은 갈멜산 남쪽의 지중해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서 현재 하이파에서 25km 남쪽에 있다. 이곳은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살면서 자주색 물감을 조개에서 추출하는 사업을 많

이 하던 곳이며(자주색은 권위상징이며 종교적 색으로 인식됨) 여호수아 시기에 하솔빈 야빈과 함께 연합군에 참여해 취득한 땅(수12:23),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곳(사1:27), 헬라시대에도 중요한 항구로서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3. 샤론 평야(Sharon Plain)

성경에는 샤론이란 이름의 두 다른 장소가 있다. 하나는 지중해 해안평야의 일부인 샤론 평야와 또 하나는 요단 동편 바산에 위치한 샤론이 있다. 샤론이란 이름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샤론 평야는 남쪽 야르콘 강으로부터 북쪽 나할 타니니(Nahal Tanninim/ river of crocodiles)까지의 지중해 해안평야를 가리킨다. 남북의 길이는 약 52km, 동서의 폭은 약 18km에 이른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샤론 평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아름다운’ 긍정적 의미와 ‘황량한’ 부정적 의미 모두 쓰였다(아2:1, 사33:9, 35:2). 샤론 평야는 목축에 적합한 장소로도 기록됐다(대상27:29, 사65:10). 신약성경에 샤론에 대한 기록은 베드로의 초기 사역에 나타난다(행9:35).

샤론 평야가 아닌 트랜스 요르단의 바산(대상5:16)에 있는 샤론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바산의 샤론이 메사의 비



문에 기록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는 아멘호텝 2세(Amen-hotep II)의 군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Saruna를 바산의 샤론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샤론 평야로 제한해 정리한다.

샤론 평야는 지리적으로 분명히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서로 구분되는 세 지역은 모두 동쪽에서 서쪽 지중해로 흐르는 강에 의해 구분된다. 지중해 바다로부터 동쪽으로 약 4km에 이르는 지역(west corridor)은 거의 연중 건조한 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우기철에는 일시적으로 호수를 이루기도 한다. 이 지역(west corridor)의 동쪽(east lowland)은 지대가 낮은 이유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 넓게 늪지대를 이룬 곳이다. 중앙지역(central corridor)은 주로 붉은 사암(Kurkar sandstone)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대는 약 40-50m에 이른 조금 높은 지역이다. 사암이 발달된 이 지역은 습지와 함께 강의 넓은 하구를 이룬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곳으로, 로마의 역사학자들인 Strabo, Josephus, Pliny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은 고대

에 상수리나무가 무성했던 곳이다. 반면 사마리아 산지를 접한 동쪽 지역(east corridor)은 경사의 차이가 없으며 동서간의 폭은 약 1.6-6.4km에 이르며 샤론 평야에서 가장 기름진 충적토에 배수가 잘되어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다.

지중해 해안을 접한 서쪽 지역(west corridor)은 20-30m의 모래 언덕이 발달했으며, 때로는 40m에 이르는 절벽을 형성하기도 한다. 샤론 평야로 유입되는 몇 개의 강 어귀를 따라 해안선의 모래는 샤론 평야 내륙 깊숙이 침투해 있다. 샤론 평야의 동쪽은 산 능선이 갑자기 솟아오른다. 산 능선의 남쪽과 중앙은 단단한 석회암이 발달되어 해안평야에서 사마리아 산지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샤론 평야에 접해 있는 산지의 북쪽은 연한 백악질로 이루어져 있어 골짜기가 발달했고 그 골짜기를 따라 내륙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샤론 평야에서 이 통로를 따라 이스라엘 평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샤론 평야의 지리적 특징은 도시와 도로가 발달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사에 적합한 조건과 또 하나는 중요한 길을 다스릴 수 있는 전략적인 조건이다. 샤론 평야의 남쪽은 기름진 충적토로서 농사에 적합하지만 야르콘 강의 북쪽 샤론 평야에 이르면 상황은 갑자기 바뀐다.

그러므로 샤론 평야에서 발달된 고대 도시들은 주로 야르콘 강의 남쪽 끝 샤론 평야의 남쪽에 밀집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하데라 강(Hadera river)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데라 강의 북쪽은 기름진 충적토에 배수도 잘되는 곳이다. 이곳은 샤론 평야의 남쪽과 마찬가지로 농사가 발달했고 가나안 전 시대에

걸쳐 도시가 발달된 지역이다. 그러나 샤론 평야의 중앙지역은 주전 1세기까지 지중해 바다로부터 내륙 산지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형성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습지가 많아 말라리아가 성행했고, 모래언덕 때문에 길을 만들 수 없었으며 농사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샤론 평야는 중앙의 습지 지역을 제외한 남쪽과 북쪽이 도시가 밀집했고 또한 지중해 해변이 아닌 내륙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샤론 평야를 거쳤던 중요한 무역로가 있었다. 샤론 평야는 육로와 바다를 통해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다. 육로를 통해서만 이집트와 시리아를, 그리고 바다를 이용해서만 이집트와 키프로스(Cyprus), 레바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과 연결됐다.

샤론 평야 내륙을 남북으로 연결한 중요한 두 개의 도로가 발달했다. 하나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야르콘에서 하데라에 이르는 길이다. 해안에서 동쪽 지역(east corridor)으로 접근하는 것은 습지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길을 이용했던 고대 군대나 약대 상인들은 내륙으로의 진출은 불가능했기에 북쪽 하데라를 지난 후 갈멜산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는 몇 개의 통로를 이용해 이스라엘로 갈 수 있었다. 두 번째 길은 샤론을 통과하는 해변 길이다.

아베크에서 서쪽 중앙산지로 또는 사마리아 산지를 인접한 동쪽 지역(central corridor)을 따라 북쪽으로 향할 수 있다. 이 길은 샤론 평야를 지난 가장 중요한 고대 국제도로였다. 고고학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됐지만 east corridor를 따라 발달된 도시들은 남쪽에서부터 아베크(143-168), Tel Zeror(Migdol/147-203), Socho(153-194)가 있다.

칼럼 음악목회 ㉒

음악목회에 대한 이해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21세기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화적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음악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대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변화와 성도들의 욕구는 물론 음악이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음악사역자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음악목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에 양적 성장은 물론 다양하게

발전해왔습니만 교회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음악목회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대학교가 담임목사만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버렸고 목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목회자들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행정목사, 심방목사, 교육목사, 교구목사, 양육담당목사 등 이름은 있으나 때가 되면 언제나 담임목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정거장처럼 지나쳐 가는 곳으로 여겨져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없고 또 다른 목

사가 오면 지속적인 연구의 축적이 없이 시간만 때우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미국교회들 중에는 팀목회로 시작하여 평생을 교육목사로 행정목사로 음악목사로 헌신하다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도중에 담임목사가 결원이 되어도 그 자리를 넘보거나 담임목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옮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와 같은 교회는 각 목회분야가 살아 있고 교회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아

름다운 영향을 주는 교회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나 한인 이민교회에 있어 음악목회분야는 더욱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음악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로 작곡이나 성악 또는 기악(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중에는 담임목사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고 헌신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앙보다는 음악적인 면을 고려해 교회사역의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책임이 음악사역자들에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음악목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한 음악목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각 신학대학마다 교회

음악과가 세워져 음악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유일하게 연세대학교에 종교음악과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신학대학에 음악과를 설립할 때 과 명칭을 종교음악과로 명명한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음악과를 어떤 특정 종교에만 맞추어 과명칭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교회음악과가 아닌 종교음악과가 있어 찬불가도 작곡하고 부르기기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곳에서 배우는 과정과 내용이 교회음악과 음악목회에 관한 것보다는 성악, 작곡, 기악 등 일반 음악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합창지휘를 가르친 것이 한국 합창계에 또한 한국교회 성가대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각 신학대학마다 세워진 교회음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음악과 음악목회에 관한 교육보다는 성악, 작곡, 기악, 지휘 등 실기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어 실질적인 교회음악인 즉 음악목회자를 배양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교회음악과 성경적인 음악목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확립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취약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천신학적인 면에서 목회의 다양성 특히 음악목회의 본질적인 발전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악목회가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예배와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만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면을 통해 귀한 교류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글을 마칩니다.

▲연락처: (714)699-0210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48 Hour Program
- 60 Hour Program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DI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21. 결혼과 진화론

기독교 국가라고 여겨졌던 요즘 미국은 동성결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동성결혼 뿐 아니라 50% 이상의 결혼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가정 파괴의 문제를 겪고 있다. 마치 동성결혼과 이혼이 문화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그 결과 두 명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의 미성년자가 50%가 안 되고 혼외 자녀들도 급증하고 있다.

1. 결혼의 기원-아담과 하와의 결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배우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한 개를 뽑아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의 배우자가 되게 하셨다. 그 결혼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인류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혼이었다.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부르며 기뻐하였다.

하나님은 이 결혼식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이성경 구절은 한자(漢字)에 있는 복(福)이란 글자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하나님(示)이 처음 (-) 사람(口)에게 에덴동산(田, 한 샘에서 솟아난 물이 4개의 강을 이루었음)에서 복(福)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중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

를 반대하는 진화론만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주장을 반대하는 진화론은 이혼을 죄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도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런즉 이제 돌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마19: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19:9).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막10:12). 지금은 이런 말들이 크리스천들에게도 별로 효력이 없는 법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진화론은 결혼의 의미도 왜곡해 계속해서 결혼제도를 변형시키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결혼 숫자보다 동거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불과 5년 후인 1995년 이후에는 동거 숫자가 결혼 숫자의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물들이 되었

진화론이 결혼에 미친 영향은 가정파괴와 동성결혼 교회의 터 회복이 해결책, 성경권위 아래 들어와야



는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말2:15).

2. 진화론이 결혼에 미친 영향-가정파괴

미국의 경우 1870년 이혼율은 3%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65년에는 27%에 이르렀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자 이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1975년에는 48%가 되었다.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1960년대 초 미국은 영적인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가 사라지고 오히려 성경

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 중에 좀 더 똑똑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한 종의 동물이라고 가르친다.

3. 진화론이 결혼에 미친 영향-동성결혼

진화론은 이혼율과 동거의 증가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범죄로 나아가게 했다. 바로 동성 간의 성행위(homo-sexuality)와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이다. 아직 모든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성결혼 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50%를 넘었다.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만 남았을 뿐이다. 성경에서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성경을 증오하고 있다(이 중에는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이나 '사랑'을 사용할 뿐 아니라 학문적인 근거로 진화론을 사용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동성행위는 연구된 대부분의 동물에서 관찰되어왔다. 포유류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동성행위는 더욱 잘 관찰된다"(Jacob Smit, "In the beginning: Homosexuality and Evolution", International Northwest Guide Magazine, 1987). "양성행위는 진화론적 생물학과 성적 분화의 발생학에서 그 기원을 갖는다"(John Money, Homosexuality/Heterosexuality: Concepts of Sexual Orientation, 1990).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부자유스러운 것인가? 현대 진화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동성행위는 인간에만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주의 깊게 연구하면 모든 동물이 동성행위를 보여준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Michael Ruse, "Evolution Theory and Christian Ethics: Are They in Harmony?" Zygon, vol. 29, 1994).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 동성행위는 다산이 기본이 되는 진화론의 원리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이혼이나 동거에서는 이미 확실한 성공을 거두어 이미 문화로 만들어 버렸고 동성결혼

문제에 있어도 여러 주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만 해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민발의안8을 법정으로 가져가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하고 있고, 동성애자를 기념하는 Harvey Milk Day 법안이 확정(2009년)되었고, 동성행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정상으로 교육하라는 SB48 법안(2012년)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한 교계의 노력은 지지자의 부족으로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하였다. "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시11:3).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이고 그런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교회가 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상을 지적하기 이전에 교회의 터를 회복해야 할 때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진화론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결정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정해집니다. 돈을 열심히 바라보면 돈 돈 돈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불사합니다. 권력을 바라보면 힘있는 자리만을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합니다. 여자(남자)를 바라보면 그 여자(그 남자)의 마음을 얻고 제 마음대로 하고픈 것에 삶이 집중이 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삼켜집니다. 문제의 크기가 자신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면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 힘겹기만 하면 문제를 잊고자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을 찾아 술을 마시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중독이 되고 저를 삼키는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에 눈을 주면 저가 바라보는 우상의 모습대로 비인격화가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인격이 배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대상 4:9-10). 어떠한 고통이었는데는 모르지만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 야베스는 그 야말로 자신의 처지가 싫었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어 오는 고통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도와줄 여는 사람의 손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 절망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 무엇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숨 막히는 상황만을 응시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오직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절대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머리 어느 구석에 있던 믿음의 작은 한 자락이 떠올랐습니다. 조상들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주셨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같이 조상을 지켜주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야를 바꾸며,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확실히 바꾸었습니다. 그 분을 바라보면서 소원하였던 대상이 복을 더해주시라고 일어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를 시인하고 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주시리라는 생각을 죽기로 불렀었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마구 심정을 뒤흔드는 모든 번민의 소리들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주만 똑바로 쳐다보며 폭풍우 한난 속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손을 꼭 잡아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목말라 찾고 의지하는 양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산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임시변통일 뿐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바라보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10) 말씀의 약속대로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선택대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Youth

교육전도사 청빙

Required Qualifications

1. 정규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Be currently enrolled in seminary or have completed it
2. 최소한 1년 이상의 Youth 사역 경험이 있는 분
At least 1year of Youth ministry experience
3. 영어설교 하시는 분
Fluent English speaking

Application Requirements

1. 이력서 (Resume)
2.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보내실 곳: lasolidrock@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Solid Rock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전임부교역자 청빙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아순시온 교회에서 전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 스페니쉬 가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CD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서류 심사후 개별통지함
제출 기한: 2013년 2월28일
제출 처: iglesia-asuncion.@hotmail.com
Lomas Valentinias 1460 Peru, Asuncion Paraguay

파라과이 아순시온교회

담임목사 정정연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어
복음
광고
다.다.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KAPC LA노회 신년하례식에서 이준준 노회장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열린 예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 신년하례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갈2:20로 시작”

소강석 목사 ‘생명나무’ 목회자 일일세미나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LA를 방문한 소강석 목사가 ‘생명나무’ 목회자 일일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비행기가 1시간 연착돼 공항에서 세미나 장소로 직행한 소강석 목사는 피곤을 무릅쓰고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소강석 목사는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 새롭게 출간된 ‘생명나무 학교’를 소개하며 강했다. 소목사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20로 시작된다”며 “우리의 옛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고 외치며 선악을 판단하지만 결국 갈라지는 결과이다. 그러나 속사람이 죽고 생명의



소강석목사가 ‘생명나무’세미나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새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나무는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받으며 살아야 하고 교회를 생명을 만들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강석 목사는 2013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연합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후 15일 귀국했다.

(이성자 기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LA노회 신년하례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이준준 목사) 2013년 신년하례식이 10일 오후 6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외쳐야 한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한다. LA노회는 아름다운 지도자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한 산 제물로 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이 2013년에 많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은 1부 예배, 2부 찬양, 3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성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이준준 목사는 이사가 22-20-2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통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해야 한다. 모일 때마다 설기는 자세로

이날 신년하례식은 장인관 목사(선교사의친구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은광 목사(늘워성경교회 담임)의 기도, 지방회장인 박용덕 목사가 “사역자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최한오 목사(나성성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박용덕 목사는 설교에서 “2013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

(박준호 기자)

“진실하고 정직한 영성있는 목회현장 되기를”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신년하례식

예성(예수교대한성경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회(회장 박용덕 목사)는 지난 6일 2013년 신년하례식을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은 은혜를 기대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영성있는 목회의 현장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은 장인관 목사(선교사의친구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은광 목사(늘워성경교회 담임)의 기도, 지방회장인 박용덕 목사가 “사역자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최한오 목사(나성성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가진 손민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지방회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의: (213)434-1083 (기사제공: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남가주연목회 새회장에 김영일 목사

13회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에 류재덕 목사 선출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회장 정요한 목사, 이하 연목회)는 13일 로텍스 호텔에서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목회

정요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영일 목사 기도, 김영일 목사(남가주목사회 직전회장) 설교, 이종렬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제13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일 목사를(햇빛선교교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가 선출됐다.

이날 제13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일 목사를(햇빛선교교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류재

임기를 마친 정요한 목사는 “한 해 동안 협력해주신 임원들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뉴호프채플 통합 금물살 12월부터 논의..새생명, 뉴호프 부채 안고 성전 사용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와 뉴호프채플이 통합한다. 13일 새생명비전교회에 따르면 LA지역 뉴호프채플과 공식적인 통합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새생명비전교회와 뉴호프채플의 통합 교회 예배처소로 사용될 뉴호프채플 건물.

새생명비전교회 한 관계자는 “두 교회의 통합은 예배처소를 찾고 있던 새생명비전교회와 공식적인 담임목사를 찾던 뉴호프채플측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아 통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면 뉴호프채플로의 이전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13일 강준민 목사가 새생명비전교회에서 1부 예배와 뉴호프채플에서 오전예배 설교 때 두 교회의 통합을 언급함으로써 통합 절차가 금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두 교회의 통합 논의는 뉴호프채플의 채무 문제(403만 달러)를 새생명비전교회측이 분담하기로 하면서 결정됐

그동안 새생명비전교회는 LA고등학교와 이디오피아교회를 빌려

사용해오다가 이번 통합을 계기로 뉴호프채플(2861 Los Feliz Blvd, LA)로 이전하게 된다.

뉴호프채플측은 “그동안 통합된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시 분열된 사례가 있었지만”이라고 지적하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만 두 교회의 통합이 이민교회에 아름다운 사례로 전해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교회 통합은 새생명비전교회로 명의이전이 되며 현재 뉴호프채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 두 명은 통합교회 사역자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뉴호프채플에서 시무중인 다섯 명의 장로들 중 2명은 조기퇴직을 하고 3명은 통합교회의 운영위원으로 편입하게 된다.

현재 뉴호프채플은 소속교단이었던 포스퀘어 교단에서 탈퇴한 상태이기에 통합과정에서 포스퀘어 교단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 기자)

목회서신

열린 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구제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깁니다. 험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제의 문이 열린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경건적이 되고 싶어집니다. 기독교방송이나 신앙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린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전도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전도하고 나

면 마음 뿌듯해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이 구제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깁니다. 험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제의 문이 열린 증거입니다.

문 열렸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열린 문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문이 부서지든지 아니면 자신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선교여행 차 구 소련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카작스탄 알마타로 비행기 여행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가 크고 몸집이 좋은 신사분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화장실 문을 열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반으로 접히면서 열리는 문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힘을 주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세계 힘을 주자 그만 화장실 문이 부서져버렸습니다. 덕분에 모든 승객들은 그 뒤 알마타에 도착할 때까지 속이 다 들어 다보이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열린 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을 왜 열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열어놓은 문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권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무엇입니까? 열린 문을 찾아보십시오. 열린 문만 잘 활용해도 우리는 주님께 칭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남부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성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p> <p>Tel: (704) 841-0821, Fax: (704) 841-1625 목사관: (704) 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9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p> <p>담임목사: 진운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E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907) 344-1235, Fax: (410) 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택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종교평론: 오후 11시 (월, 화) 유치, 유년: 주일 10:00</p> <p>Tel: (508) 425-4579, Fax: (508) 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볼티모어교회</p> <p>담임목사: 이영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p> <p>Tel: (410) 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83</p>	<p>샬롯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 529-0900 / (989) (택시) 701 Scaleyp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 456-0191 6007 Pacific Ave, SE P 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침례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제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주일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 527-0981, Fax: (206) 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cesattle.org</p>	<p>알칸사 제지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410) 203-9049, Sibley, (501) 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as.com</p>	<p>앵커리지열린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 755-1490, 타택(915) 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 634-8705, (254) 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06) 456-0191 6007 Pacific Ave, SE P O BOX 8358 Lacey, WA 98509</p>	<p>주에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Tel: (860) 643-4738, Fax: (860) 643-0565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p> <p>Tel: (410) 203-0516, Fax: (410) 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p> <p>Tel: (253) 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p> <p>Tel: (253) 535-6207, 531-8424 Fax: (253) 539-4433 9702 E. 8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수명</p> <p>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 536-6675, Fax: (253) 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Tel: (480) 728-0191, Fax: (480) 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보</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927-0630, Fax: (215) 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kcp.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 643-4738, Fax: (860) 643-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 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창현</p> <p>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 739-1004, Cell: (808) 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p> <p>담임목사: 김순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808) 277-2936, 557-1778, 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www.hnw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교회연합사역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겠다” 제22대 OC교협 이취임 감사예배 성황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제22대 OC교협 이취임 감사예배가 13일 오후 4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OC교협 이취임식에서 민경엽 신임회장이 엄영민 이임회장에게 교협기를 이양받고있다

이날 민경엽 회장은 취임사에서 “언제부턴인지 교회가 세상에 있지 않은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교협사역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많았고 교회 형편이 사역을 감당할 처지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어 교협회장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도 교회지만 연합사역을 통해 좀 더 세상에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며 “세상에 있는 교회로 세상에 있는 교회연합사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생각과 소원이 있다. 혼자만 아닌 선배 동료 후배 목사들과 평신도지도자들, 나침반교회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22대 회장으로 OC교협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기

도해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손병렬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나침반교회 찬양대(지휘 김윤식 목사)가 찬양을, 신종은 OC목사회 회장이 기도를, 박우진 OC기독교전도연합회 회장이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가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것’(시27:1)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수많은 교회가 주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목사 장로의 문제, 성도들과 교회들의 윤리문제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윽고 “그 이유는 두려움이 없어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몸에 배어있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신앙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신앙이다. 두려움만이 교회회복 신앙회복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

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종말의 때에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회복하는 신앙운동이 온 교회 미국 땅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이종현 집사(오렌지한인교회 지회)가 헌금송을, 유덕근 목사(OC교협 부회장)가 헌금기도를 했으며 엄영민 직전회장이 이임사를 한 후 교협기 이양식을 가졌다. 한편 이날 나침반교회 한국학교 학생들의 고전무용과 태권도 시범으로 오프닝 세리모니를 비롯 OC교협 발자취 영상소개,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담임)와 장영춘 목사(분지발명인, 뉴욕교협중경회장, 퀸즈장로교회 원로)의 축하영상소개와 진우철 남가주교협 회장, 최석호 알바인 시장,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장, 한광성 OC, 샌디에고 평통회장, 박신욱 미주복음방송 사장, 론 가르시아 브래이 시장, 새론 켈 실바 가주주학원의원의 축사로 이어져 22대 OC교협의 출범을 빛냈다.

이날 예배는 허경삼 OC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13년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정기총회 회장 조성환 목사, 수석부회장 서병호 장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 2013년도 정기총회가 13일 저녁 7시에 열려 신임회장에 수석부회장 조성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를, 수석부회장에 합창분과위원장 서병호 장로(주님세운교회)를 선출했으며 부회장 엄인용 선생이 작년에 이어 유임됐다. 조성환 목사는 “작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돼 본 협회에서 일해왔다. 신임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총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신임회장 조성환 목사)

한편 이날 총회 전에 열린 1부 교회예배는 엄인용 부회장의 사회로, 김미선 회장이 기도를했으며 조성환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했다. 2부 만찬에 이어 열린 3부 총회

원점명, 개회선언, 사찰선정, 회순 통과, 2012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정관 통과, 기타토의 사항으로 이어졌으며 회장단 선출, 신규임원 인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총회는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한편 김미선 이임회장은 미주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1월 26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중부 교협 신년하례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화합과 일치”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신년 하례식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박소건 목사) 신년 하례식이 7일 오전 11시 알테시아에 위치한 알테시아 세리토스 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석부 목사)에서 개최됐다. 회장 박소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부회장 허귀암 목사의 기도와 남가주목사회 직전회장 김영대 목사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년”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회장 박소건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초교파적으로 140여 교회

를 희망차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다.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는 애너하임, 알테시아, 벨뷰라우어, 부에나파, 세리토스, 사이프러스, 다우니, 라하브라, 라미라다, 라팔마, 레이크우드, 놀워, 산타페스프링스, 사우스게이트, 스탠던, 웨스트민스터, 위티어 등 17개 지역에 140여 교회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기사제공: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남가주OCU 신년예배 및 한국군 선교보고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회장 장석운 장로)는 지난 8일 저녁 6시30분 복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30여명이 모여 신년예배 모임을 가졌다.

연중, 장석운 신임회장의 인사와 광고 후 복음방송 사장에게 지난 회기년도에 모은 방송선교후원금을 김회장 직전회장이 전달했다. 이어 백형로 제2부회장의 인도로 합심기도 후 이재홍 목사가 축도함으로 신년 축하예배를 마쳤다.

최훈일 제2부회장의 인도로 원태여 전회장단 대표의 기도, 미주복음방송 사장 박신욱 목사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창39:1-6)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 김용구 목사의 트럼펫

한보고 간증을 함으로 조국복음화의 열정을 알렸다. 특히 지난 해 5월 19일 논산훈련소연병장에서 9,519명이 모여 8,506명의 세례식 실시에 대한 간증을 피크를 이뤘다. 한편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OCU)는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 6시30분 복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모임을 갖는다.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지역 연합기도회

남가주지역 연합기도회가 주최하는 기도모임 “주여 내가 여기 있다”(사6:8)가 26일(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가정의 회복”, “나라와 민족(선교)”, “교회의 부흥과 리더를 위해”, “개인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LA사랑의교회(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우미도 준비돼 있다. <문의: (213)435-3489, kimheegi@hotmail.com>

CGV 시네마스 영화 ‘환경직’ 상영

CJ CGV 아메리카는 사단법인 환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지원하고(주)마운틴 픽처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환경직’(감독 천정훈)을 18일부터 24일까지 LA 한인타운 웨스턴가에 위치한 CGV 시네마스(621 S. Western Ave)에서 매일 6회 특별 상영한다. 86분 분량인 이 영화는 앨런트 정애리 씨가 나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국 기독교계의 큰 나무였던 고 환경직 목사의 인생 98년을 더듬어볼 수 있다. <문의: (213)351-1060>

파라과이 전임부교역자 청빙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아순시온 교회(담임 정정연 목사 Lomas Valentin 1460 Peru, Asuncion Paraguay)에서 전임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스페인어 가능자 우대)로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CD를 2월 28일(목)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iglesia-asuncion@hotmail.com>

미주성결대학교 학생 모집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는 2013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본교 학위과정은 신학사(B.Th.),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M.C.C.), 선교학석사(M.M.)이며 자격은 세례 받은 자로서 중생의 체함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이며 입학서류는 본교소정양식(www.aeui.org 참조)을 20일(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323)643-0301>

마데데스 개혁신학대 학생 및 교수 모집

마데데스 개혁신학대학교 대학원(학장 한연섭 박사)은 2013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을 그리고 교수를 초빙한다. 학위과정은 대학교과정(신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음악학사), 대학원 석사과정(기독교교육학사, 종교음악학사, 신학석사, 목회신학석사), 대학원 박사과정(기독교교육학사, 목회신학박사, 신학박사, 종교철학박사) 등이다. 또한 기독교교육학, 한국교회사, 기독교음악 과목을 가르칠 교수를 채용한다. <문의: (213)999-1307, 교무처(323)932-0788>

남가주든든교회 교육전도사 청빙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Youth 교육전도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최소 1년이상 Youth 사역 경험이 있는 영어설교가 가능한 자이다. 지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보낼곳은 이메일 lasolidrock@gmail.com이다. <문의: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신년예배를 마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로번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www.thanksgivingchc.org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sgivingchc.org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우철 lafcus@yahoo.com / www.lafcus.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Tel: (714)772-1600, Fax: (714)772-1911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Tel: (323)939-7323, Fax: (323)939-1656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Tel: (213)481-2779, Fax: (213)481-3761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8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대동성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등문교회 담임목사: 최태우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Tel: (213)468-1234, Fax: (213)466-0816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Tel: (562)694-6214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Tel: (626)793-0280, Fax: (626)793-6412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Tel: (626)960-8800, Fax: (626)960-8044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Tel: (213)380-9377, Fax: (213)380-9377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www.mijoopeacechurch.org Tel: (310)387-2202, Fax: (310)387-253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Tel: (949)854-4010 / Fax: (714)373-5717	벤쿠버리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Tel: (604)584-5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Tel: (562)694-6214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Tel: (626)333-6177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 Fax: (818)893-8607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8425, Fax: (949)857-9472	오렌지카운티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엄영민 Tel: (714)819-2029, Fax: (714)373-3097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Tel: (213)245-409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www.gpc.org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rstonev.com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성 없다” 결의

한기총 실행위, WCC부산총회 성공개최 공동선언문도 추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4일 구 예장 전도총회(일명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이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예장 합동과 기감 등의 교단에 이단 지목을 받고 있는 류 목사를 검증하고 공개청문회 등을 거친 결과, 이단성이 없다”는 요지의 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류 목사의 다락방은 1995년 한국교회 이단문제의 쟁점이었다. 교단들은 다락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결정을 내렸다. 류 목사는 1998년과 2011년 ‘한국교회 앞에 드리는 글’ 등을 발표,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이 선언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있었다. 겸손한 자세로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선언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2004년 예장 합동 총회 복귀를 시도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전도총회는 결국 2011년 6월 예장 개혁 총회(당시 총회장 조경삼

이단협, 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 재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홍재철 대표회장)가 최근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해 사실상 이단 해제를 결정할 것과 달리 이단 연구 단체들은 류광수 목사가 이단임을 재확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귀신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단협은 또, “다락방만이 초대교회 이후 유일한 복음을 전한다는 배타적 교회론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할 9개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다락방을 이단으로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모인 이단 대책

단체들은 이날 신년하례회를 갖고, 이단사이비 척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의식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안받아

성탄절 행사가 아니어도 종교의식에 관한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질의에 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신고 면제 대상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나와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관련 의식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에 (종교의식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관련 의식이란 제한할 이유는 없고, 사회통념상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종교의식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특정 종교와 관련된 공식 의례로 한정하기보다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중

목사) 영입 직전 해체했다.

류 목사는 이날 결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예수 복음과 전도에만 전념하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고 겸손히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류 목사가 소속된 예장 개혁 총회장 정학재 목사는 “류 목사에게 대한 검증과 이단해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 류 목사와 예장 개혁 총회를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과 전날 합의한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 안건도 추진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공동선언문 채택은 진보와 보수 교회가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기독교 2013 예산 737억 VS 23억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예산을 살펴보면 불교가 압도적이다. 순수한 문화재 보호 예산을 빼고 비교하면 불교는 737억원, 기독교는 23억원이다.

문화부 예산에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105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10억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0억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 7억원,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 해외전파 조사 및 DB 구축 5억원이 포함됐다. 불교 시설 건립 예산도 있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29억원, 금산사 처영역사문화기념관 건립 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진관사 부지에 건립할 계획인 전통음식 체험관 조성 사업에 15억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엔 향후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147억 6200만원씩 투입된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과 참선수행, 불상 이해 등을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195억원이 지원된다. 문화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던 종교평화법 “불교계의 기독교 공격용”

불교계가 18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을 통해 기독교의 신앙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일보가 10일 입수한 246페이지 분량의 ‘제18대 대통령선거 불교정책 제안사업 계획서’를 통해 확인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불교계는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학내 신앙교육 금지, 교회내 투표소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종교평화법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그동안 법안은 ‘종교차별을 막는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문만 있었지만 실제로 공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종교평화법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교차별 금지’ ‘공직자의 종교편향 금지’ ‘강제적 종교교육 금지’ 조항에서 종교차별을 행한 국가·지방공무

원에 대한 처벌과 미션스쿨 내 신앙교육 금지를 철저히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교차별의 판단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며, 인권위 시정명령이 있을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을 뒀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종교평화법에 대해 “종교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한섭 한국교회 언론회 사무국장은 “박 당선인은 그러나 불교계가 비슷한 취지로 제안한 증오범죄처벌법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교회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기독교 2013 예산 737억 VS 23억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예산을 살펴보면 불교가 압도적이다. 순수한 문화재 보호 예산을 빼고 비교하면 불교는 737억원, 기독교는 23억원이다.

문화부 예산에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105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10억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0억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 7억원,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 해외전파 조사 및 DB 구축 5억원이 포함됐다. 불교 시설 건립 예산도 있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29억원, 금산사 처영역사문화기념관 건립 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진관사 부지에 건립할 계획인 전통음식 체험관 조성 사업에 15억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엔 향후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147억 6200만원씩 투입된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과 참선수행, 불상 이해 등을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195억원이 지원된다. 문화

재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으로 213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예산으로 ‘10·27 법안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교육관 건립에 200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개신교 예산은 과거 2억원가량에서 다소 증가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개최준비 20억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 개최준비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WCC와 WEA 총회 지원과 관련해 “특정 종교의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아니고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사업의 본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종교	예산액(억원)
불교	737
기독교	23
기타	2

“한기총-한교연 재연합하라”

한국장로회총연합회 22만여 장로들 촉구

전국 17개 장로연합회로 구성된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경남 장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대해 재연합을 촉구했다. 연합회 회원수는 22만여 명에 달한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은 통폐합해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력하면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기총은 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일부 교단이 탈퇴 또는 행정 보류를 결정하고 지난해 3월 한교연을 설립하면서 분열된 상태다.

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3층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제안서’를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장로들이 교단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회는 제안서에서 “조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한국교회에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한기총 및 한교연이 하나로 재연합할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구약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로서 교파 간의 전통과 교리를 존중하면서 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재연합의 취지로 제시했다.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진정한 세계를 건설하려면 한국교회가 숭신수법해 하나님 모습으로 통일된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

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야’는 역사적, 시대적 요구는 성경의 가르침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분열과 교권 다툼으로 얼룩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제안서에서 “조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한국교회에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한기총 및 한교연이 하나로 재연합할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구약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로서 교파 간의 전통과 교리를 존중하면서 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재연합의 취지로 제시했다.

2004년부터 신천지 신도생활을 했던 A씨(여, 주부)는 2006년 신천지를 탈퇴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A씨는 수년 동안 이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신천지 탈퇴자 다시 신천지로 간 까닭은?

이단 신천지에서 탈퇴한 신도들이 다시 신천지에 빠지고 있다고 CBS TV 인터넛판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기사에 의하면 탈퇴자들은 신천지 탈퇴 이후에도 계속되는 회유와 편견 때문에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신천지 신도생활을 했던 A씨(여, 주부)는 2006년 신천지를 탈퇴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A씨는 수년 동안 이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신천지 신도였다는 꼬리표 때문에 쉽게 받아주는 교회도 없었다. 이 때문에 A씨는 방향을 거듭했고, 목숨까지 끊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

다고 고백했다. A씨는 “탈퇴자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어디다 하소연할 때가 없고 너무 괴로워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탈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신천지가 잘못된 교회관과 구원론, 시한부 종말론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기성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방향하던 탈퇴자들 중 일부는 육체영생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허구를 알면서도 신천지

의 치밀한 회유에 다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신천지 탈퇴자 A씨도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지만 할 수 없이 다시 신천지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단 상담 전문가들은 “신천지 탈퇴자들이 회심과정에서 교리에 대한 혼동과 기성교회의 편견으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천지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성 교회가 탈퇴자들을 받아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탈퇴자들이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

는 신천지로 돌아가는 비극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천지는 탈퇴자들에게 다시 접근해 회유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데 반해 기성 교회는 신천지 탈퇴자들에 대해 교리 반

증 프로그램도 전무한 실정이다”며 꼬집었다. 강종인 소장(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상담소)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왜 이단 교리가 잘못됐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준다면 이단으로 다시 빠지는 일은 없을

탈퇴자들, 교리혼동과 신천지 꼬리표로 자살 생각까지

의 치밀한 회유에 다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신천지 탈퇴자 A씨도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지만 할 수 없이 다시 신천지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는 신천지로 돌아가는 비극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천지는 탈퇴자들에게 다시 접근해 회유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데 반해 기성 교회는 신천지 탈퇴자들에 대해 교리 반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비롯해 각종 이단 예방활동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탈퇴자를 보듬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혜성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경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교신문을 창간하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쿨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쿨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쿨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이.야.기

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팅크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극증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경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인/터/뷰 장영호 선교사(아르헨티나)

찾아가는 선교...인디오들 하나님께 인도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디오 위치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장영호 선교사. 아르헨티나 지역특성상 찾아가는 선교를 통해 복음과 상관없던 인디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시회사 한양에서 3년간 근무하던 장영호 선교사는 1986년 아르헨티나로 이민 의류사업을 하던 중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아르헨티나의 교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좀 더 신학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며 특별히 한국의 영성에 대



달라고 30분간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와 축도를 마친 후 그 집을 나오려는데 자매가 깨어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의 일행을 보내셨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장 선교사는 말했다.

장영호 선교사는 남미는 공통적으로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하며 아르헨티나도 예외는 아

남미지역 가톨릭 강세, 개신교도 은사중심 성경지식 약해 '바른 신학 세우기'가 목표

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한국의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해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죠. 그리고 GMS에서 2003년 파송돼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GMS 파송선교사로 아르헨티나로 온 장 선교사는 고 유상수 목사의 인도로 현지인교회를 사역하게 됐다. 인디오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장 선교사는 회상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인디오교회 두 군데를 후원했었습니다. 동문 목사님의 전화요청으로 인디오 위치족 후원을 하게 됐지요. 두 명의 위치족을 후원하는데 한 명은 교회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게 했습니다. 인디오들이 사는 곳은 매우 열악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했어요. 그러나 교회형편상 두 명을 돕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는 교회에서 단기선교팀을 구성 인디오들이 사는 지역으로 방문하기로 하고 목사님 동생을 비롯 16명의 선교팀을 구성해 현지로 들어가게 됐다. 30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해야 했고 날씨도 무더워 숨이 막힐 정도였다.

“순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날씨에 적응을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선교일정을 취소하고 철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선교라는 거 자체가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잠시 나아갔던 마음을 추스르고 계획했던 것을 진행해나갔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선교사

님께 이곳에 온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고 철수하게 되면 함께 온 청년들에게 면목도 서지 않는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가 선교일정을 소화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쁨 부으심이었다고 말했다. 낮에는 전도활동,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일정을 진행했고 그곳에서 활동하던 무당이 뒤집어지는 역사도 체험하게 됐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안수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

“한번은 인디오청년이 저녁집회를 마친 후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가 매우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집회 때 데리고 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청년이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핀잔을 주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간절히 부탁을 해서 괴근함을 무릅쓰고 그 청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장선교사는 그 청년이 거주하는 집은 못자리 같은 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생활할 정도로 매우 누추했으며 맨땅에 시키면 물체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시키면 물체는 바로 그 청년의 아내였으며 아무리 흔들어봐도 반응이 없었다. 순간 그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됐으며 기도 외에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장선교사는 그 청년의 아내를 붙들고 하나님께 살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개신교의 역사는 100년 이상이다.

“아르헨티나의 개신교를 보면 침례교와 오순절계통의 교단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성공회도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아르헨티나 북쪽으로 침례교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상층과 지식인중심의 교인들이 많습니다. 반면 중하위층은 오순절 쪽이 많습니다. 그곳의 70%가량의 교인들이 오순절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남미의 역동적인 음악과 춤이 가미된 문화와 오순절이 잘 매치가 돼서 오순절의 교세가 강해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교회들의 맹점이 말씀중심이 아닌 은사중심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성경적 지식이 빈약한 목회자들로 인해 왜곡된 신학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바로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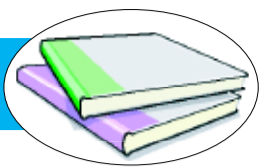
지난 6년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장영호 선교사는 이제 안식년을 마친 후 잠시 LA를 방문한 뒤 현지로 돌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더욱더 헌신할 것이라 밝혔다.

선교지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으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바로 영적 전쟁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호 선교사의 연락처는 이메일 changpastor214@gmail.com 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책소개



가정사역단체 패밀리터치 대표 정정숙 박사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에 이어 지난해 말 간증집 “아빠의 선물”을 출간했다. 패밀리터치는 이 책의 수익금은 패밀리터치 기금으로 사용한다며 선물용으로 추천했다. 2권의 책을 묶어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구입처 문의는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를 참고하거나 (201)242-4422에 연락하면 된다.

“아빠의 선물”

저자 정정숙 박사

“삶이 선물이듯 고난도 선물입니다”라는 부제를 단 간증집 “아빠의 선물”은 8년간 루게릭병을 앓았던 남편의 투병생활을 통해 깊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 자신의 고통과 치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저자의 간증은 독자들에게 하여금 절절한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하다.

1부 ‘삶, 선물입니다’는 첫 번째 이야기-삶 선물입니다와 두 번째 이야기-열매 맺



했다. 저자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부 ‘죽음, 선물입니다’는 다섯 번째 이야기-죽음은 선물입니다와 여

삶이 선물이듯 고난도 선물... 루게릭병 남편 8년 투병일기

는 삶을 위하여로 나눠져 있다. 저자는 1부에 대해 “부른 희망을 안고 인생을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이야기”라고 소개한다. 사랑과 결혼과 사명 이뤄가기에 대한 간증이 담겼다.

2부 ‘고난은 선물입니다’는 세 번째 이야기-고난은 선물입니다와 네 번째 이야기-열매 맺는 고난을 위하여로 되어 있다. 저자는 2부에 대해 “생각과 계획과 정 반대로 인생의 행로가 진행되어 갈 때, 예기치 않은 고통이 내 삶에 문을 두드릴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어는가”에 대해 썼다고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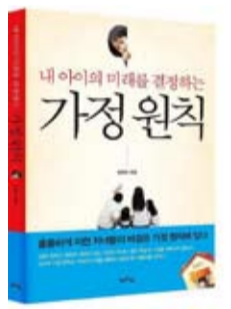
첫 번째 이야기 열매 맺는 죽음을 위하여로 마친다. 3부에 대해 저자는 “홀연히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상실의 고통이 찾아올 때..어떻게 감당한 끝까지를 지나 죽음 뒤에 이어질 아름다운 세상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썼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최선의 삶을 이끌어가며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

이 책은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의 비결은 가정원칙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저자는 “양육원칙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가정의 자녀는 결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며 자녀의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8가지 가정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1원칙-올바른 자녀 양육 스타일로 기초를 놓아라’는 제목 아래 권위주의, 방임주의, 민주주의, 혼합주의 4가지 스타일을 설



성경이 말하는 훈련과 그 기본 원칙에 대해 썼다. ‘5원칙-인상 좋은 아이로 키우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 주라’는 제목 아래 좋은 습관 기르기의 3원칙, 3단계

훌륭하게 자란 자녀의 비결 8가지 가정원칙 소개

명했다. ‘2원칙-건강한 자긍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라’는 제목 아래 자긍심에 대해 설명하며 3가지 자긍심과 자긍심의 3요소를 설명했다.

‘3원칙-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시켜 주라’는 제목 아래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며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라고 조언한다. ‘4원칙-효과적인 훈련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워라’는

등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6원칙-행동 교정으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자녀로 이끌어라’라는 제목 아래 부적절한 행동을 다루는 원칙에 대해 소개하고, ‘7원칙-모범을 통한 교육으로 부모의 삶과 신앙을 전수하라’는 제목 아래 모델링의 원칙과 그 방법에 대해, ‘8원칙-즐거움 가족시간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라’는 제목 아래 가정예배와 가족 모임에 대해 언급했다.

(유원정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게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기독교문학소설

(남)기와는 다른 이야기 (10)



정중해 박사 (문학인)

영란은 아버지를 동정하듯이 근심스런 얼굴이 되어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말이야, 난 요사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좀 달라졌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되 나도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보상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이걸 아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지 모른다."

영란이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물었다. "아버지,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만 믿는 신앙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 목적은 오직 그분을 위해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한 목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홍수로 의사하거나, 다리붕괴로 콘크리트 바닥에 깔려 죽을망정, 너희 어머니처럼 식물인간으로 삶을 마감할망정,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의지를 포기해 버리면 우리 벌써 우리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야."

영란이와 영순은 아버지의 설교에 위압이 되었는지 아무 코멘트가 없었다. 아버지는 속았던 고개를 다시 들고 딸들에게 몇 마디 더 덧붙였다.

"너희들 엄마가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셨다고 비통해하면 할수록 우리 산 사람이 더 비참해질 뿐이다. 이런 슬픈 일을 전 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지. 영어로 말하자면 'Turn this misfortune into a blessing'

이 불운을 축복으로 바꾸어라'이야 성서에서 하나님의 축성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물어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성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니?"

어리둥절한 영란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두 어깨를 뚫고 모른다는 시늉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 얼굴을 뻗혀 쳐다보고있던 영순이가 슬쩍 대답을 시도했다.

"창조주?" "그러니까 내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은?"

두 딸이 자신이 없는 듯 대답을 유보하자 무영은 스스로 대답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절이야. 너희들이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분의 자비심을 가지고 역경에 처한 인간 형제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무영은 오래간만에 딸들에게 긴 설교를 했다. 자라난 딸들과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무영은 자식들에게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듯이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자기 소신을 숨김없이 고백했던 것이다.

한참 중전에서 빛나고 있던 해는 벌써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다. 작은 딸은 부락도 하지 않았는데 슬그머니 아버지 등 뒤로 가더니 두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안마하기 시작했다. 큰 딸은 피크닉 테이블에 널려 있는 음식 그릇을 하나씩 얼음 상자에 쟁겨 넣고 있었다.

(끝)

신교 편지

탄자니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시62:7).

할렐루야! 주안에서 평안을 기도드리며 편지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11월 1일 첫 비가 내린 뒤로 한 달이 넘었지만 비가 내리지를 않아 대지는 날마다 뜨거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잠깐 채워졌다간 저녁에 하늘 저쪽 모서리에서 번개가 계속 내리치지만 이내 밤이 되면 언제 구름이 있었느냐 하면서 별들이 하늘 가득 채웁니다.

선교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뜨거운 열기에 다들 힘들어 하며 하루하루를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 뿐 비가 온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도도마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적처럼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때는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소멸될 것 같은 불안감이 짙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리라 확신합니다.

매마른 광야의 한 모퉁이에 서서 한 해를 지나가는 마지막 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줄기를 고대하며, 그 가운데 쫓겨간 기다리는 자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내리는 빗줄기와 같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모든 분들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 세상을 이기고 남는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와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선교부 사역은 차근차근히 건물들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몇 동이 준비되지 않아 학교사역과 신학교사역이 지연되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사역도 이곳 현지 교단으로 등록한 다음부터 교회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매월 모이는 기도회 및 세미나 그리고 전도대회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의 열심과 애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부에 참여했던 나무들은 언제 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 어머니와 에스터를 만나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으며, 후원교회들과 사역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도도마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품안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도제목들

1. 저희들을 파송하시고 사랑과 기도로 늘 애써 주시는 은성교회 모든 장막 식구들과 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성경 1000권 구입을 부담하여 주신 베델교회와 손인식 목사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무명으로 컨테이너 작업 비용을 부담해 주신 분, 단기팀으로 오셔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제광교회, 유 목사님 가정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컨테이너와 비품들을 구입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4. 5개월간의 안식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 주신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2012년 한 해 동안도 이곳 도도마 사역을 위해 동역해 주신 각 교회, 선교부, 개인 모든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6. 이전과 같지 않은 몸 컨디션으로 인해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저희들과 더불어 사역하시는 현지인 목회자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사역의 길 갈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9. 사역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 해주십시오.

SIKUKU YA KUZALIWA YESU KRISTO NA HERI YA MWAKA MPYA.

황광인 선교사



있느냐는 듯이 벌써 사람 키의 두 배나 자랐습니다. 선교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꽃나무와 나무들도 자리를 잡아 이제는 큰 나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심기 시작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울타리가 이제는 완연해졌습니다. 아직도 나무들이 심기위쳐야 할 곳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선교센터를 정리하며 나무들을 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동네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며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현지 지도자들을 전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복음이 완전해질 그날을 위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3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3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3년 5월 17일(금) ~ 20일(월)
2) 고시 장소: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국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아모스 9:11-15
(2) 신약 주해 - 마태복음16:13-20
(3) 논문 제목 - 줄기세포 연구 및 적용에 관하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4) 설교 원고 - ① 신약: 누가복음9:23-27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시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논문을 중심으로 설교원고시서를 지름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본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본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3년 8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3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7회 총회기간(5월 21일-23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상회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할것 5월 17일-21까지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3.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상회 목사 (Rev. Samuel Heo) / Email: 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201-981-0009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송찬우 목사 (425)773-0504 (chansong_u_hase@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허상회 목사 (201)981-0009 (heo1004@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최혜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3)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 - 20(Mon), 2013.
2) Place: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Amos 9:11-15
(2) NT Exegesis Text - Matthew 16:13-20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Stem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4) Sermon Text - ① NT: Luke 9:23-27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heo1004@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nksChoi_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August of 2013.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Heo (201)981-0009, (heo1004@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amuel Heo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201-981-0009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Chan w. Song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Samuel Heo (201)981-0009 heo1004@hotmail.com
3) nquires in English: Rev. Hanks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7. 사모의 영성가꾸기

사모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입니다. 특히 제일 가까운 남편인 목사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사모의 영성관리는 목회자의 아내로서 필수적인 과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성없이 사모의 길을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사모들의 경우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며 두려움 나머지 사모가 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남편이 기도할 때 많이 하거나 교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들에게는 대부분 사모감이라고 목사에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모가 되는 조건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도와 다른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중한 사모들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는 현실로 직면한 과

이런 질문에도 자신은 남편 목사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신랄하게 점검하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파괴를 제일 못 견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 가는 부부라면 서로 서로 감동을 받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 줄 줄 아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혼자만 거룩하다고 큰소리치며 상대방을 배려 할 줄 모르는 사모라면 그의 열매는 뻥 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창 22장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 말씀에 아무 이유도 없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모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그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 곁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해 오는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그의 영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어릴 적 12살 때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는 가난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없을까 생각이 들 때마다 목회자의 가정은 돈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생활에 매우 불편함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 다만 기도와는 생활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흑흑한 비바람을 맞던 그 때에도 기도만큼은 할 수 있었기에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모, 균형 잡힌 영성 있는지 검토 깊어가는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비례

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신령한 사모는 아닙니다. 잘못된 영성은 오히려 목회자에게 적지 않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모들의 균형 잡힌 영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깊은 기도를 강조하는 경우, 신비의 세계로 몰입하는 경우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영성보다 사모가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 목회를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를 해도 사모가 응답을 더 빨리 받습니다. 그럴 때라도 사모는 가정의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누구에게도 같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는 이렇게, 사모에게는 저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 목사가 영적으로 조금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사모들은 생리적으로도 민감하여 때로는 응답을 남편보다 먼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부부의 질서를 더 중히 여겨 사모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모는 인내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응답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장 큰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더욱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기에 자신의 응답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모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합니다. 남편 목사님은 거기에 비해 기도시간도 짧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모들은 남편을 은근히 내려다보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듯. 뭐, 기도는 제대로 하겠어요" 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대로 믿고 나갈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내가 세운 남편을 너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몸이 망가지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에도 기도만큼은 할 수 있었기에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학교를 졸업하는 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졸업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더니 성경구절 한 개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 주고 싶은 졸업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받은 구절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116: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버지는 곁에 계시지 않아도 그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역에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 길러주신 기도의 습관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앞에 있다 해도 앞도릴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 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어 올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키산맥 해발 3000피트 되는 곳에는 수목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 모두 무릎 꿇은 채 똑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심한 바람과 모진 광풍으로 인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은 나무는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잘생긴 나무를 먼저 베어갑니다. 못생긴 나무가 나무를 지킨다는 말도 있지요. 이 나무들은 제일 마지막에 어느 목수가 베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든답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어느 것보다 공명이 잘되어 깊이 비싼 바이올린으로 팔립니다. 우리의 깊어가는 영성은 심한 바람과 모진 광풍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비바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비례합니다.

엡3:18, 19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탐욕(잠23:1-14)찬328장

모든 죄의 뿌린 탐욕을 이김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큰 용사보다 더 낫습니다.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탐욕이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은 칼을 목에 둔 것과 같으며 (1-3) 마침내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하게 되었습니다(4-8). 바벨탑이 무너지듯 탐욕의 마지막은 허사입니다. 둘째, 불로소득을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되는 것보다 진실한 수고를 통해 진실한 열매를 얻으려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셋째, 적극

적 방법으로는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4-5) 소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며(10-11) 은혜에 착념해야 합니다(11-12).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에 착념치 않으면 절로 교만하고 부패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탐욕을 좇아가도록 돼있다고 말한 것입니다(딤후6:3). 육체 소욕의 정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만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싸우는 용사의 길을 걸으십시오.

화 아굴의 잠언(잠30:1-17)찬405장

아굴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건의 본업입니까? 첫째, 그는 계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5-6). 말씀의 순수성, 명백성, 구원성, 권위성을 확인하는 건전한 성경관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아는 자였습니다. 마치 개혁자들의 성경관을 그림으로 보는 것 같고 성경체현 주의자의 샘플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합니다. 둘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7-9). 그리스도인의 자화상과 진실된 균형잡힌 삶(렘4:13)을 평생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정신과 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일로 삼은 자의 본업입니다. 셋째, 그는 불효하는 무리, 교만한 무리, 탐심의 무리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11-17). 거짓과 탐욕을 경계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 신앙과 통하는 그의 신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생긴 것입니다. 아굴의 확신으로 살아갑시다.

수 악인의 행동(잠24:1-22)찬403장

하박국 선지자와 시편 37편의 시인처럼 악인의 번성으로 생긴 일련의 갈등에 관해 잠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악인의 행동은 장래가 없다고 말합니다(1). 악의 번성과 배은망덕자의 행동은 일시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이 무너지는 까닭은 좁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둘째, 시기하고 괴로워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19-

20). 자기 집을 지혜로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3). 이 말은 말씀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리이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세상 최고의 부요가 부족하지 않는 확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소자들을 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의인은 이웃 소자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참3:19).

목 알맞는 삶(잠24:23-34)찬88장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지혜의 삶은 모든 방면에 꼭 맞는 생활입니다. 세 방면에 그러해야 합니다. 첫째, 판단의 적응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모보다 중언을 보고 판단하며(23-25) 적절한 말과 적절한 일의 균형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에 대한 적응성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극에 달할 때 적응성을 잃기 쉽습니다(28-29). 원수를 대할 때도 복수욕을 따르지 않고 축복하고 용서함으로 더 높은 차원의 복

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의 용서의 기도는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였으며 그를 죽이던 사울이 사도가 되는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셋째, 환경의 적응성을 가져야 합니다. 게으른 자의 환경은 보고서도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자입니다(30-34). 실로암 담배가 무너질 때 지혜자는 악을 두려워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17-18). 복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갑시다.

금 슬기자의 처신(잠25:1-14)찬376장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효력을 나타냅니다. 어느 방면에 효과가 나타납니까? 첫째, 왕적 다스림에 나타납니다(2-5). 일을 살피고 꿈과 고상한 마음을 소유하며 의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자의 일차적인 일은 자기 마음을 말씀에 양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둘째, 합당한 삶에 나타납니다(11-13).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충성된 사자는 모두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

납니다. 지혜자는 세상의 알팍한 처세술을 능가한 경건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인격에까지 그 영력으로 무장해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가정예배 시간을 이런 현장으로 만듭시다. 그곳에 복이 임하고 영성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 의인의 여(잠25:15-28)찬43장

여호와 경외하는 의인의 혀는 세 가지 방향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겸손의 혀를 갖습니다. 마음에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연 겸손하여 인내하며 부드러운 말을 갖습니다(15,23). 조급한 말 때문에 손해 보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겸손한 말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진실의 혀를 갖습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을 의뢰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진실의 혀로 나타납니다(18,19). 솔직한 말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거짓이 될 수 있

습니다. 진실의 영의 기록인 진실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여 진실한 말만 해야 합니다. 셋째, 화목의 혀를 갖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화목의 언어입니다(20,21,24). 경제적 풍요를 맛볼 때 방종하기 쉬운 우리 마음에 항상 은혜 받는 일을 힘쓰므로 은혜로 고르게 하는 말, 곧 겸손, 진실, 그리고 화평의 언어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한 해를 주를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가득 차게 합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18-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330-5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빙구 목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동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광역시 북구 교안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3676(로마총대) VIA DEI QUINTILI 32-33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목동동 330-5, (134-833)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평택시 수지구 대성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4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252 (15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신사동 137 번지	시은수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말.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이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말.토)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20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군 이천읍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2999, Fax. (82)2-482-8388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목4동 104(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서성동 239-1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서성동 23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읍 302-67 (140-031)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강사 •



김성길 목사
• 시온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항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포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만영 목사
• 천구들교회



김순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주영 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11-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개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 명: _____

-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선금을 등록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